

“2006년 06월 11일” (경남)지방직 기출문제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①	①	①	④	③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③	②	④	②	③	③	②

- 지문은 척화비에 대한 내용이다. 척화비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친 뒤 전국 각지에 건립되었다.
- 암록강 북쪽에 큰 비가 있다는 사실은 <용비어천가>를 비롯한 조선 전기의 몇몇 문헌에 언급되어 있지만, 조선 후기까지 비문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다. 1880년경 청나라의 농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 고조선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 : 비파형 동검, 북방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 지문은 부여에 관한 기록이다. 부여에서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점을 보는 우제정법이 시행되었었다.
- 최승로는 유교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도모하였다.
- 지문은 황준헌의 「조선책략」이다. 그로 인해 이 당시 개화운동과 위정척사운동을 유발한다.
영남만민소 : 당시 조선정부는 일본에서 들어온 외교서적인 《조선책략(朝鮮策略)》의 영향을 받아 미국 등의 서구 열강들과 수교하려는 개방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영남의 유림들은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1881년 2월 이만손(李晩孫), 강진규(姜晉奎), 이만운(李晩運) 등이 중심이 된 만여 명의 유림들은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척사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 춘주는 지방토착세력으로 중앙에서 파견되는 것이 아니다.
- 진흥왕 이후 상실하는 영토는 함경도 지방으로 ㉠이 옳다.
- 각 단체 대표 125명이 5개월간 논쟁했지만 독립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을 구성한다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로 돌아가면서 임시정부는 이탈세력이 많아지고 이로인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 「농상집요[農桑輯要]」 : 고려 때 이암(1297~1364)이 원(元)나라로부터 수입한 농서(農書).
- 교관경수는 의천이 주장했으며, 지눌은 돈오점수, 정혜쌍수를 주장하였다.
- ②은 구석기시대, ③④는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이다.
- 신윤복은 사회 각층을 망라한 김홍도의 풍속화와 달리 도회지의 한량과 기녀 등 남녀 사이의 은은한 정을 잘 나타낸 그림들로 동시대의 애정과 풍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고경명은 금산에서 전사하였으며, 곽재우는 전사하지 않았다. 김천일은 제2차 진주혈전 때 전사하였다.
- 조선후기에는 잔반 등의 발생으로 경제력이 평민과 같은 양반이 발생하기도 하며 부농의 성장으로 인해 평민들 중에서도 양반보다 경제력이 좋은 경우도 있는 등 신분과 경제력이 불일치 되었다.
-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등이 실력양성론에 해당한다.
수리조합반대운동 : 산미증식(産米増殖)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수리조합은 수리조합비의 과다 징수, 일본인 대지주의 토지경매와 조선인 중소지주의 몰락, 소작료의 인상 등을 가져와 전국 각지에서 광범위한 수리조합반대운동이 일어났다.

17. 대동법에 관한 설명이다.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였으며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차별 징수한 전분 6등법과는 달리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로 통일하였다. 황해도, 평안도는 미곡이 많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유출을 막기 위해 돈 등으로의 대납을 허용하였다.

18. 토지의 상품화를 통해서 양반이나 상인들이 토지를 무분별하게 매입하여 그 소유를 증가해 나가면서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지주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19. 각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지방 토호 세력인 향리의 권한을 축소시키며, 또한 유향소를 통제함은 중앙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즉, 중앙집권화를 위함이다.

20. 지문은 대한자강회의 글이다. 대한자강회는 국민교육을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독립의 기초를 다진다는 목표 하에 1906년 독립협회의 맥락을 이어 1905년 설립된 헌정연구회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확대,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교육기관 증설 주장, 고종황제 퇴위 반대, 일진회 성토 등이 있다.